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이야기

전주 장편영화제작지원 선정작 최진영 감독 '태어나길 잘했어' 내달 크랭크인... 지역 영화인들 대거 참여

전북 지역 영화인들이 주축이 된 장편독립영화 '태어나길 잘했어'의 제작이 확정됐다. (사)전주영상위원회의 2019 전주 장편영화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된 '태어나길 잘했어'는 10여년간 지역 영화감독으로 입지를 다져온 최진영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으로, 영화 '한강에게' (감독 박근영)에서 보여준 섬세한 연기로 충무로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 강진아가 주연으로 캐스팅 됐다고 전했다. 이 영화는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주인공 '훈희'가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이야기를 기존 독립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미장센과 유머로 그려낸 유쾌한 판타지 영화이다. 주연배우 강진아 외에 독립영화에서 많은 팬층을 보유한 배우 홍상표, 황미영, 임호준 등이 캐스팅을 확정지으며 그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연출을 맡은 최진영 감독은 단편영화 '반차' (2017), '뽕' (2017), '연희동' (2018) 등 다수의 영화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창의적이고 독특한 시선으로 그려냄으로써 그만의 확고한 작품세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았다. 약 3년간의 기획개발 과정을 거쳐 제작을 준비한 최진영 감독은 "지역의 스태프와 배



전북 지역 영화인들이 주축이 된 장편독립영화 '태어나길 잘했어'

우들이 함께 참여하고, 전북 지역에서 모든 촬영이 진행되는 지역 영화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태어나길 잘했어"를 통해 지역 영화 제작이 보다 안정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는 12월 2일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 국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상위원회 사무국(063-286-0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오정선 교수가 최근 전주한벽극장 대강당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했다.

소야곡으로 가을을 한껏 '만끽'

전주대 오정선 교수 '피아노 이야기' 연주회 성료

피아니스트 오정선 교수(전주대학교 객원교수)가 최근 전주한벽극장 대강당에서 '2019년 오정선의 피아노 이야기' 라는 슬로건을 걸고 '함광진 소야곡'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소야곡은 밤에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거나 연주하던 노래란 뜻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연흥을 위한 가벼운 연주곡이란 의미로 세레나데 (Serenade)로 불리기도 하고 곡의 프로그램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며 또 연주장에 와서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우선 오정선 교수는 전주의 작곡가 김삼곤의 작품 '피아노를 위한 파랑, 파랑새'를 시작으로 청중에게 친밀한 베토벤 비창 소나타, 리스트의 '현정, 사랑의 꿈, 물위의 노래', 쇼팽의 프렐류드24번 'The Storm', e minor 왈츠 그리고 영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그랜드 폴로네이즈를 연주했다고 밝혔다. 함광진이란 수석어는 피아니스트 오정선의 연주를 듣고 한 청중이 표현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피아니스트 오정선의 연주를 알 수 있는 단어이다. 오 교수는 "청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가을을 만끽 할 수 있는 음악을 함광진 소리를 가진 피아니스트 오정선의 해설과 연주를 통해 공감 하실 수 있는 연주회가 되었고 전주 연주전 19일에 순천에서 먼저

연주회가 열리며 또 민추의 계절에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벽극장에서 가을을 만끽 할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피아노 음악이 좋아진다는 피아니스트 오정선의 다음 연주는 12월 14일 드림필과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기금미션 콘서트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오정선 교수는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전주대학교 음악교육학과 전북대학교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후, Bulgaria Sofia 국립음대에서 실기 만점으로 Master of Degree를 취득했고, 국민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서 Salzburg Hochschule Sommerakademie Diplom, Russia Gnesin 음악원 Master Class참가했으며, 페테르부르크 현악중주단, 광주시향, 우크라이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또한 서울, 독일 등 국내외에서 25회의 독주회와 미국 카네기홀 공연(2019년)을 포함해 Joint Recital, 전라예술제, 전주소리축제 등 다수의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피아니스트인 오정선교수는 "이번 연주회는 다양한 피아노곡들에 대한 대중화를 위해 매년 실시해온 피아노 이야기를 청중들과 함께 많은 관객이 참여하면서 연주회가 끝날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익선·정양원 기자

아름다운 선율과 환상적인 하모니로 큰 감동을!

정음사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내달 3일 정음시립합창단 정기공연 개최

12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정음사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66회 정음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그리움'을 주제로 90분 동안 낭만 가득한 하모니와 따뜻한 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먼저 시립합창단의 그리움 마음 등 4곡의 합창을 준비했다. 더불어, 이날 공연에는 '수제천 보존회'와

'전주 소년소녀 합창단'을 특별 초청했다. 수제천 보존회는 정혜의 여인 등 3곡을, 전주 소년소녀 합창단은 터키 행진곡 등 3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어 합창단과 수제천 보존회의 협연도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선율과 환상적인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겠다"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과 친근한 소통을 이뤄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김대환 기자



전북광역새일센터 10주년 기념 포럼 성료... 고용유지율 향상 도모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 이하 센터)는 27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북지역 새일센터 취업·직업상담사, 전라북도 여성정책담당자, 일자리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새일센터 1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전북지역 새일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 논의와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예방 및 고용유지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태희 박사(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사업 평가팀)의 '여성새일하기센터 취업지원 성과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수인 소장(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엄영숙 교수(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강현미 사무국장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세용 경영지원본부장(제이비잡앤컨설팅), 김현진 센터장(안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난 10년간 새일센터의 성과와 향후 새일센터의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윤애 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지역 새일센터가 지난 10년간 경력단절여성들과 함께 한 만큼, 앞으로도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 만들기 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큰 호응'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박진호)은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누름꽃 테이블 매트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5세~7세 어린이들이 식물의 꽃과 잎을 활용해 테이블 매트를 만들어 보고, 행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체험뿐 아니라 전시실 관람을 연계 운영해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실(219-5449)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호 전북대 자연사박물관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인내심,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사회가 따뜻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